

생활속의 기도법
활활털고 같이가세
도가 본시없는데...
선 백문백답



큰스님 체험 녹아있는 생활법문책 '인기'

최근들어 큰스님들의 체험을 바탕으로한 진솔한 생활법문집이 불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스님들의 법문집이 어려운 교리와 한문의 나열로 현학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최근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몇몇 큰스님들의 법문집은 오랜 수행생활에서 우러난 개개인의 독특한 수행방법과 체험을 현실감있게 소개하고 있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계종 원로원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효림)과 <기도>(효림)를 비롯,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의 <활활 털고 같이 가세>(정토)와 <도가 본시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쳐 왔나>(동지),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의 <선 백문백답>(파리나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사찰의 주련 I
본지에 인기리에 연재중인 권영한 씨의 '한국사찰의 주련(柱聯)'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스테디블서인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의 저자이기도한 권영한 씨는 20여년 전부터 전통사찰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행하는 특별 기도 성취법,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인도하는 영가초도의 묘법과 천도하는 이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하고 있다. 또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행하는 특별 기도 성취법,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인도하는 영가초도의 묘법과 천도하는 이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하고 있다.

300여 사찰주련 해석·사진 모음서
의 환관과 주련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수집한 3백여 곳의 사찰 주련을 모아 번역해 <한국사찰의 주련>을 펴냈다. 이 책은 글귀의 뜻이 감동적이고 심오한 고찰의 주련

을 풀라 사진과 함께 실고 해석을 달았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고자(古字)와 초서체가 많아 판독과 해석이 어려운 고찰의 주련을 경전의 원문과 스님들의 도움으로 해독해 수록한 것이다. 저자는 "조

새로 나온 책...
▲물교의 실상과 역사 上·下(김종명 저)=김종명씨(전 불교신문 주필)가 해박한 교리와 산지(禪地)를 바탕으로 꼼꼼한 자료를 결집해 엮은 불교입문서. 재가 포교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응용하던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KBS의 '종교시간'과 '마음의 등불' 시간을 통해 강의한 내용과 신문 잡지 기고문을 비롯, 그간 국내외 불교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초심자들의 다양한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신아출판사 각권 1만2천원>
▲공공치는 큰스님(박상률 저)=한글체대를 위한 고승 시

스님·신도들의 기도성취 영감을 모은 책이라면 <생활속의...>는 기도인의 자세와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 예화를 들며 설명한 신행 안내서다. <기도>의 좋은 반응과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발간된 <생활속의...>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기도의 기본원리와 방법, 불보살의 가피를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타스님은 "기도 성취의 비결은 '간절 절(切)' 자에 있고 '간절 절'은 삼매로 통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기도가 삼매를 이루어 오랜 시간 계속되면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생활례를 강조하는 서암스님의 두 법문집도 인기가 높다.

동쪽나라(대표 김형균)는 중국 4대 기서종의 하나인 <서유기>를 극화 한 민화 <파이팅 손오공> 상·하권을 펴냈다. 이정문 화백이 월간 <동쪽나라>에 4년 동안 연재한 민화를 엮은 <파이팅 손오공>은 원작 <서유기>에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부분을 골라 엮은 책이다. 불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는 현장스님(삼장법사)과 손오공을 비롯한 제자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천축에 도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유머와 풍자로 그려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바른 마음을 키운다.

이들 불서들의 공통점은 불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큰스님들이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의 내용을 포장없이 들려주는 실용 신행서란 점. '어렵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의탁'이라는 법문집들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절하기도 삼매·깨달음으로 통한다”
진솔한 예화·생활禪 등 실용 수행서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분도출판사(대표 김구인 원장)가 <불교의 이해>(케네스천 저, 1982) <선과 성서>(김윤주 저, 1994)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참선>을 출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엔 번역 출간된 <그리스도인의 참선>(김구인 역)은 불교를 연구하고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온 일본 도쿄 소피아대학교 종교연구소 윌리엄 존슨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선의 기법은 신앙을 돈독히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분도출판사의 불교관련 서적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명상에 선불교의 방법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물론 두 종교는 동등한 가치와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편 지난 60년 이래 <중국종교와 그리스도교>(풀리아칭 저) <유교와 기독교>(풀리아칭 저) <도교사>(구보 노리파나 저)

“참선으로 하느님 만나다”
분도출판사 '그리스도인의 참선' 등 펴내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분도출판사의 불교관련 서적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명상에 선불교의 방법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물론 두 종교는 동등한 가치와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편 지난 60년 이래 <중국종교와 그리스도교>(풀리아칭 저) <유교와 기독교>(풀리아칭 저) <도교사>(구보 노리파나 저)

대부분의 불교가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거기에는 세존의 인품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나는 성자를 묘사하는 기록으로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품위있으며, 영명한 빛이 스며 있는 종교 문학을 알지 못한다.

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다. 또한 당신의 평생에 걸친 가르침을 잘 요약하여 정리하신 후 '무상(無常)'과 '정진(精進)'이라는 두 마디 말씀을 남기신 뒤, 스스로의 선정력을 통하여 마침내 저 완전한 최고 최후의 경지인 반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 분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완전한 법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근본 경전들을 음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인 위빠사나(Vipassana)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불법의 맛, 불법의 평화, 불법의 진실, 불법의 아름다움, 불법의 고귀함, 불법의 기쁨, 불법의 확신에 약간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	법정	샘터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하	좋은인연
3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4	마음을 속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집부	정토
5	기도	일타	효림
6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경서원
7	부처님의 유언	공과	태일
8	무소유	법정	범우사
9	붓다 꺼지지 않는 등불	장부아	시공사
10	불교 절에 대한 바른 이해	정암	우리출판사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대반열반경

불교를 접한 지 십년쯤 되던 80년대 후반, 나는 큰 낭패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제법 불교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과연 더 평화로워졌는지에 대해서라면 발반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근본불교부터 꼼꼼히 새로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럼으로써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알고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도 단순한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눈뜸은 주로 <법구경> <수타니파타> <아함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전이 남정(南傳)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이르기까지의 행에 최후 수 개월 간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부처님이 일생동안 전심전력으로 가르치신



김정빈 (작가)

“반열반 드시는 완전한 삶 등 부처님 인품 생생하게 묘사”

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다. 또한 당신의 평생에 걸친 가르침을 잘 요약하여 정리하신 후 '무상(無常)'과 '정진(精進)'이라는 두 마디 말씀을 남기신 뒤, 스스로의 선정력을 통하여 마침내 저 완전한 최고 최후의 경지인 반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 분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완전한 법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근본 경전들을 음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인 위빠사나(Vipassana)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불법의 맛, 불법의 평화, 불법의 진실, 불법의 아름다움, 불법의 고귀함, 불법의 기쁨, 불법의 확신에 약간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지만 하던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자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찾아오시려면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